



인도

신흥국 전략

인도 이슈 업데이트: 중장기 정책 방향 재확인

Compliance Notice

본 조서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회담 세부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첨단 제조업, 인프라, 재생에너지 세 축으로 수렴

인도 정부는 최근 일본 및 러시아와 연달아 회담을 진행했다. 일본과는 AI, 방산, 고속철도 등 인프라 개발과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협력을 논의했으며, 러시아와는 첨단 제조업, 핵심 광물·금속, 녹색수소·ESS 분야와 관련한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각 국가와의 협력 분야는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큰 틀에서는 첨단 제조업 육성, 인프라 확충,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 가지 축으로 수렴된다. 이들 분야는 이미 예산안과 주요 정책 발표를 통해 인도 정부의 중장기 성장 전략에서 우선순위로 제시되어 온 바 있다. 주요국과의 연이은 회담을 통해 기존 정책 방향이 유지되고 있으며, 해당 정책들이 대외 협력과 실제 투자 프로젝트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가 해당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 제조업은 인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입지를 한 단계 더 강화하기 위한 핵심 축이다.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 온 제조업 육성 정책인 'Make in India'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과 맞물리며 인도는 새로운 생산기지로 부상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단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만으로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제한적이고, 핵심 부품 및 원자재에 대한 대외 의존도도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 인도 정부의 정책 초점은 기존 제조업 기반을 활용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고 관련 밸류체인을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단순한 생산 이전 효과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기반 확대, 전략산업 자립도 제고로 연결하기 위함이다.

둘째, 인프라 개발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성장 기초 지속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다. 인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물류비 절감, 전력 공급 안정화, 항만·철도·도로망 개선 등 생산 기반 전반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으로 경기 하방을 완충하는 수단인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 내 경쟁력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성장 기반으로 기능한다.

셋째, 재생에너지는 제조업 고도화는 물론 최근 중요성이 특히 높아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인도는 제조업 비중 확대, 데이터센터 및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제조업 경쟁력의 필수 조건인 만큼 전력 수급 안정성은 점차 더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로 에너지 수입 경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에너지 지원인 재생에너지 확대의 정책적 필요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종합하면, 최근 일본 및 러시아와의 회담은 인도 정부의 성장 전략이 첨단 제조업, 인프라, 재생에너지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정책과 대외 협력의 방향성이 동시에 맞물리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의 정책 지속성과 투자 가시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도표 1. 인도-일본, 인도-러시아 간 회담 주요 내용

인도 정부-일본-러시아 간 회담 주요 내용		
구분	세부 협력 분야	주요 내용
일본	AI-첨단기술	AI 활용 확대와 첨단기술 협력 강화 논의. 일본의 정밀 엔지니어링 및 하드웨어 기술 경쟁력과 인도의 소프트웨어·IT 인력 역량을 결합해 디지털 전환 및 첨단산업 협력 확대하는 방향
	고속철도·교통 인프라	뭄바이-아메다바드 고속철도 사업 협력 재확인. 2027년 우선 구간 상업운영 목표를 지원하고, 향후 전국 고속철도망 구축과 관련한 협력 가능성도 논의
	재생에너지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 해상 에너지 운송, 전략비축유 협력, 바이오가스 확대를 논의. 청정 암모니아, 그린수소, 태양광 PV,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협력도 포함
	경제안보·공급망 협력	반도체, 핵심광물, ICT, 청정에너지, 제약 등 핵심 분야에서 프로젝트 기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 특정 국가 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
	방산·해양안보	해양안보, 위성 기반 해양감시, 해군 MRO, 방산 장비·기술 협력 확대. UNICORN 해군 통신 안테나 프로젝트의 기술 세부사항에 원칙적으로 합의
러시아	첨단 제조업	첨단 제조업 분야 투자 확대 논의. 기존 에너지·방산 중심 협력에서 제조업·산업기술 분야로 협력 범위 확대
	핵심광물·금속	핵심광물, 금속, 희토류 등 전략 원자재 협력 논의. 전기차·배터리·ESS·재생에너지 밸류체인 안정화와 연결
	녹색수소·ESS	녹색수소와 에너지저장장치 분야 협력을 논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저장 인프라와 산업용 에너지 전환 기반 확보 목적

자료: 하나증권